

수리 1등급 7~13점 상승 외국어는 2점 하락할 듯

입시전문기관 가채점

언어 소폭 올라

입시 전문기관들이 13일 제공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수리영역은 작년보다 쉽게 출제돼 1~2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외국어영역은 상위권의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온라인 교육업체 진학사와 메가스터디(이하 메가)가 각각 수험생 11만명과 12만298명의 가채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리 1등급 커트라인은 '가'형의 경우 진학사 88점과 메가 89점으로 지난해보다 7~8점, '나'형은 92점으로 13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4등급의 점수도 전년 대비 대폭 높아져 수리 '가'형은 진학사 5점, 메가는 10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수리 '나'형은 최대 18점까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외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전반적으로 점수가 떨어졌다.

1등급 커트라인은 두 업체 모두 93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 2~4등급의 경우에는 4~5점씩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학년도 시험 이후 외국어의 1등급 구분 점수는 줄곧 95~96점이 유지돼 왔다.

언어영역 점수는 작년보다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점쳐졌다. 언어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이 진학사 93점, 메가 94점으로 전년보다 1~2점이 올랐고, 2등급은 각 2점, 3점, 3등급은 3점, 5

■진학사 수능 가채점 결과 예상 등급컷

■언어			
등급	2010 수능 원점수	2009 수능 원점수	증감
1	93	92	1
2	88	86	2
3	82	79	3
4	78	71	7
5	70	61	9
6	60	51	9
7	50	41	9
8	39	30	9
9	39 미만	30 미만	-

■외국어			
등급	2010 수능 원점수	2009 수능 원점수	증감
1	93	95	-2
2	84	89	-5
3	74	79	-5
4	65	69	-4
5	51	55	-4
6	38	41	-3
7	30	30	0
8	22	22	0
9	22 미만	22 미만	-

점, 4등급은 7점, 6점씩 상승했다.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국사, 한국지리, 법과사회가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돼 1등급 구분점수가 40~48점 수준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탐구에서는 물리와 화학 등급컷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물리1은 작년에 원점수 만점(50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43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입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올 대입의 성공여부는 외국어와 수리영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시전형에선 이 두 과목의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수리 (가)			
등급	2010 수능 원점수	2009 수능 원점수	증감
1	88	83	5
2	78	73	5
3	70	65	5
4	59	55	4
5	51	45	6
6	36	34	2
7	26	24	2
8	17	16	1
9	17 미만	16 미만	-

■수리 (나)			
등급	2010 수능 원점수	2009 수능 원점수	증감
1	92	79	13
2	84	68	16
3	73	55	18
4	59	42	17
5	37	28	9
6	25	18	7
7	18	14	4
8	10	9	1
9	10 미만	9 미만	-

고, 원점수에 따른 표준점수도 엇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입시업체들은 그러나 이들 분석 자료는 추정치인 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든 응시자의 성적을 분석해 통지하기 전까지 참고자료로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은영 진학사 평가위원은 "원점수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예상도 힘들다"면서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크게 다르므로 대학별 환산점수를 확인하기 전까지 예단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까”

13일 오전 광주고등학교 진학상담실에서 3학년 학생들이 전날 치른 수능 가채점 성적에 따른 진학 가능 대학을 찾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소외된 아이들 위해 40여년 헌신

‘푸른 눈의 교육자’ 눈을 감다



양노린 수녀 선종

12일 평생 교육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해왔던 푸른 눈의 양노린(사람의 시튼 수녀회 광주본원·미국어를 메린 노린·사진) 수녀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되뇌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수도생활 65년 향년 83세.

말 같고 동생 같은 ‘자매’들에게 어머니요, 큰언니였던 양노린 수녀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6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출신으로 시튼힐여대에서 초등교육학을 전공한 양 수녀는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교육선교 수녀 파견 요청에 자원해 동료 3명과 함께 한국에 왔다.

당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없었던 강진에서 성요셉여중고를 시작해 무용과 음악을 가르

쳤고 영어교육에 전념했다.

1961년의 강진. 지역 주민들은 성요셉여중고 간판을 달고 영어를 가르치는 푸른 눈의 수녀가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제자들만 1만5천명

강진에 정착한 양 수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쳤다. 한국 이름도 어질고 순하다는 뜻을 지닌 ‘양순희’다. 푸른 눈의 수녀는 영어뿐만 아니라 음악과 무용도 가르쳐 주었다.

양 수녀에게 배우고 졸업한 학생만도 졸업자 1만 5천명. 그들을 양 수녀의 따뜻한 사랑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제자를 만날 때면 ‘어느 해 몇 학년 몇 반’이었는데 정확히 기억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제자 손화정(54)씨는 “수녀님이

가정방문 때마다 내놓은 삶은 달걀을 사양하지 않고 드셔서 배탈이 나셨던 일이 기억난다”며 “수녀님은 이름 그대로 맑고 순수한 분이셨다”고 말했다.

양 수녀는 1992년 평교사로 은퇴한 후에도 10여 년간 영어회화 교사를 자원해 일하다가 지난 2005년 3월 사람의 시튼 수녀회 광주 본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용근 교육상’ 수상

양 수녀는 지난 5월 40여 년간 소외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15회 김용근 민족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상은 연희전문 재학 때 일제 탄압으로 육고를 치렀고 5·18 민중항쟁 당시 제자들을 숨겨준 혐의로 투옥돼 병을 얻어 세상을 떠

고(故) 김용근 선생의 교육정신을 기리는 상이다.

양 수녀의 건강이 부쩍 나빠진 건 올해 초부터다. 몸져눕기 얼마전 “내가 죽으면 강진에 묻어달라”는 말을 수녀회에 전했다.

오세향 관구장 수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라는 숙명의 말씀을 자주 되뇌며 타국생활의 어려움과 봉헌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던 수녀님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라며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수녀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 정신은 오롯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빈소는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있는 사람의 시튼 수녀회 본원, 14일 오전 9시 양산동 천주교회에서 장례미사를 마친 뒤 담양 천주교공원 묘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문의 062-571-300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